

‘불안하다’는 것은 비단 예술가만이 느끼는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불안감,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이냐는 불만족한 현실, 내가 믿어왔고 행했던 일이 부정당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의심, 불안은 그렇게 삶의 하나의 일부처럼 존재한다. ‘불안’은 곧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원인을 알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답을 찾고자 하는 방법을 알면 되지만 ‘불안’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한숨이다.

1

<느슨한 연결구조> 김하림, 박혜민, 안민환, 엄아롱, 유상희는 ‘불안’이란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두 비정기적인 일, 4대 보험 시스템 안에 규정될 수 없는 ‘예술’이라는 일을 도모하고 확장한다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일 것이다. 이들과의 첫 만남은 2017년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같이, 가치> 사업을 통해서였다. <같이 가치> 사업은 매 회 공간과 장소, 현시점을 짚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점하며 다양한 갈래의 공간의 창작자와 예술가들의 적극적 연결지점을 모색하는데, 이 당시 기획자와 코디네이터의 역할로 참여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다.

기획사업 중 하나의 갈래로 참여한 <느슨한 연결구조>는 예술가의 ‘불안’을 다룬 프로젝트였다. 비고정적인 수입, 잦은 이동에 따른 피로감, 전시 후에 남겨지는 허무함, 예술의 불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다. 창작 행위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보장받을 길도 없고 생존과 작업의 줄다리기에서 ‘불안’을 느낄 요소는 너무나 많은 것이다. 자조적인 불만일수도 있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이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술의 노동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작업, 불안을 어떻게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한 명의 기록자와 함께 느슨한 대화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기록자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넓혀가면서

“작업과 생계를 병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비는 어디에서 버나요?” “작품을 판매한 적은 있나요?” 구체적인 상태를 물으며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한다.

예술가의 노동환경은 시스템 구조 안에서 포획되기가 어렵다. 노동의 대가를 환산 받는 가치도 다를뿐더러 “좋아하는 하는 일”이라고 터부시되는 경향도 있다. 시즌마다 뜨는 공모사업, 정부사업에 지원서를 쓰는 일부터 용역,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불안해서 억눌렀던 마음을 꼭꼭 담아놓기도 한다. 불안한 환경에서 “작품이 반응이 없어도 끝까지 할 수 있나요?”이 질문이 마음이 쓰이는 이유도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불안하고 우울하다.

아무도 제때 받아주지 않는 감정이 때론 추하게 느껴지고 무력한 불안감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 하지만, 혼자만의 불안이 아님을 직면한다면, 말없이 곁을 내어주는 이가 있다면 어떨까. ‘진정한 개인이 되려면 비밀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경험과 기억을 나누는 행위,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연약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느슨한 연결, 느슨한 대화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고자 하는 바는 작은 위안일 뿐이다.

나는 이들의 대화에 다시 한 번 초대를 받았다. 그때 느꼈을 불안의 요인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짐작하면서 의연한 안부를 묻는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다.